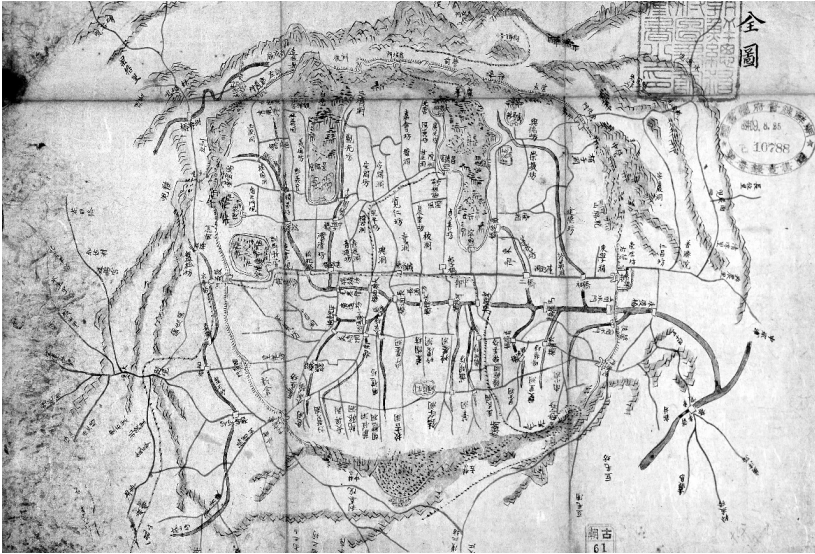


제1부



천진암성지에 묻히신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하느님의 증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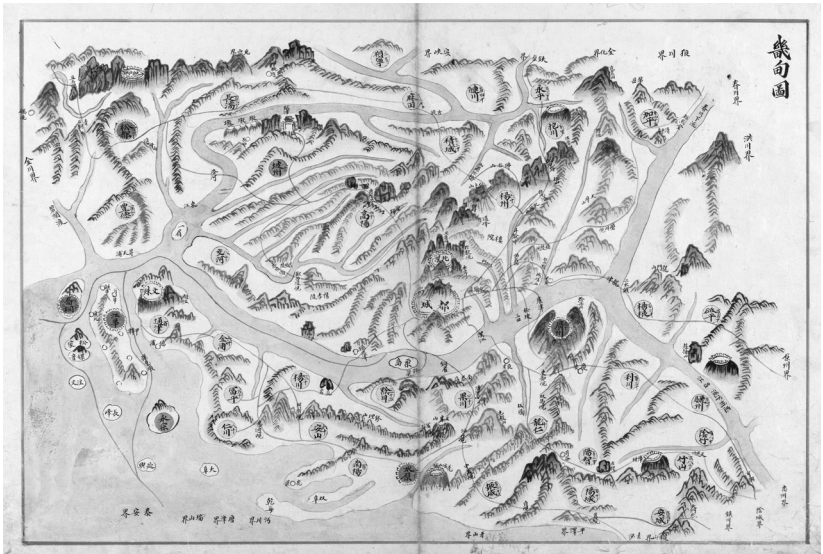
집필 _ 김학렬 요한 사도 신부



1777년 한경전도 : 한성(漢城) / 도성(都城)과 그 부근의 지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 해동전도 > 한경전도

*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한경전도_in_해동전도_from_국립중앙도서관.htm



19세기 전반 경기도 양수리(두물머리) 일대 : 한성(漢城) / 도성(都城), 광주, 양근, 포천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동국여도 > 기전도

*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기전도_in_동국여도_from_규장각한국학연구원.htm

十

창립선조

이벽 요한 세례자

(1754 ~ 1785)

다블뤼 주교가 전하는

이벽의 강학

성 안토니오 다블뤼(Daveluy, 1818~1866) 주교는 그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Vol.4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첫 페이지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을 “이벽의 강학(講學)”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 비망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를 펴낸 달레(Dallet, 1829~1878) 신부는 1권 제2장(프랑스어 원문) 첫머리에, “1784년 마침내 조선을 위하여 구원의 날이 밝았다.”라고 임의로 추가하면서 1784년을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인 것처럼 언급하여, 다블뤼 주교와는 전혀 다른 오류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 “이벽의 저 위대한 강학’에 홍유한(洪儒漢, 1726~1785)은 참여할 수 없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조선천주교회 역사는 ‘이벽의 저 강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천주께서 조선 복음화의 첫 시동(branle, 時計鍾)을 걸기 위하여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경주이씨 가

문의 자는 덕조, 호는 광암이라고 하는 이벽이다. 정약용 요한은 천주교가 조선에 알려진 것이 ‘이벽의 저 강학’이 있기 200여 년 전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정약전, 이벽과 함께 이 ‘첫 강학’에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 의하면,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은 하느님의 종 이벽(李穰, 요한 세례자, 1754~1785)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천주교 강학으로부터 마련되었다. 이벽과 우리 신앙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천주교회를 창립한 동기와 방법, 희생과 그 과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인 진리 탐구의 강학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벽은 경주이씨로, 그 집안은 고려조 때부터 지위가 두드러졌다. 그의 조상 가운데에는 학문이 뛰어나거나 벼슬에 오른 사람이 여럿 있었고, 증조부 이후로는 무관직에 종사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이벽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태어났다. 키는 8척이고 한 손으로 백근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셸으며, 유창한 언변은 도도한 강물의 흐름에 견줄 만하였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지력을 타고난 그는 오직 사물의 이치와 학설의 참된 토대만을 추구하였다. 언제나 사물의 근본을 파고드는 데 몰두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경전(經典)을 공부하며 그 깊은 뜻을 파악하려고 애쓴 그의 노력이 ‘이벽의 강학’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벽의

집안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는 경주이씨 국당공(李籀)파 16대손으로, 소현세자를 심양에서 8년간 모신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

講院文學) 이경상(李慶相, 호 默菴, 1602~1647)의 직계 5대손이며, 아버지 이부만(李溥萬, 1727~1817)과 어머니 청주한씨(1726?~1790) 사이에서 3남 3녀 중 차남으로 1754년 포천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의 부친 한종해는 1795년에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1752~1801) 신부를 밀고한 한영익 진사의 증조부다. 이벽의 형은 이격(李格, 1748~1812)이고, 동생은 이석(李晳, 1759~1829)이다. 이벽에게는 세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원주에 사는 청주한씨 한치영과 마재의 나주정씨 정약현 진사, 풍산홍씨 홍윤호(정약용의 처남)에게 출가하였다. 따라서 이벽은 정약현의 처남이 되어 정씨 가문과 교류하였다.

이벽의 선대에 증조부 이언기(李彦基, 1681~1750)가 춘천에 살면서 진사가 되어 지평현감을 지냈으며, 조부 이달(李鎰, 1703~1773)은 무과에 급제하여 평산 부사와 전라병마절도사 벼슬을 하였다. 부친 이부만은 사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이벽의 형 이격은 무과에 급제하여 부안현감과 개천군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와 황해도 병마절도사 부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동생 이석 역시 무과에 급제하고 좌포장, 경상좌병사, 황해도 병마절도사, 함경남도 절도사 등의 벼슬을 하였다. 이벽의 형제들은 신유박해 때 ^{1801년} 권문(권철신) 일가와 교류하며 도왔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쫓겨나가거나 유배되어 곤욕을 치렀다.

한편 이벽의 누이 경주이씨는 화순군수와 진주목사 등의 벼슬을 한 정재원(丁載遠, 1730~1792)의 장남 정약현(丁若鉉, 1751~1821)과 결혼하였다. 그리하여 이벽은 정약현의 이복동생인 정약전(丁若銓, 1758~1816), 정약중(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정약용(丁若鏞, 요한 사도, 1762~1836) 등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이벽이 독서처로 정해 입산수도하던 천진암(天真庵)에 갈 때면 사돈 정씨네 소년들이 따라왔는데, 이때 이벽은 손아래 영특한 사돈들에게 천문학과 지리학, 성리학과 의학, 수학과 역학, 기하원본과 천학(天學) 등 서양

신학문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돈댁 소년들은 이벽의 학문적 깊이에 경탄하였고, 그에게 존경과 신망을 보였다.

이벽은 첫 결혼에 상처하고 재혼하였다. 이벽의 첫 번째 아내는 안동권씨 권엄(權嚴, 1729~1801)의 딸로, 이는 1979년 6월 21일에 변기영 문시놀이 포천 화현리에서 이벽의 무덤을 발굴할 때, 이벽의 지석(通德郎慶州李壁之墓) 옆에 아내의 지석(恭人安東權氏之墓)이 나오므로써 확인되었다. 그러나 권씨는 자녀 없이 요절하였고, 이후 이벽은 해주정씨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해주정씨의 지석(恭人海州鄭氏之墓)도 이벽의 묘를 발굴할 때 함께 나왔다.

천진암

강학

이벽은 녹암 권철신(權哲身, 암브로시오, 1736~1801)을 중심으로 1776년 전후에 형성된 녹암계에 속하는데, 녹암계 학자로는 이벽 외에 김원성, 권상학, 이충억, 이존창, 홍낙질, 홍낙민, 정약전, 이윤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성호 이익(李瀾)의 원시유학(元始儒學) 탐구와 실사구시를 위한 서양 학문 수용 등의 경향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권철신의 거처인 감호에서 가까운 주어사(走魚寺)와 천진암 등지에 모여 성리학, 양명학, 서학 등을 토론하고 강학하였다.

이벽은 1784년 이전에 이미 조선에 전래된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칠극(七克)』, 『천주강생언행기략』, 『천주강생성경직해』, 『주교연기(主教緣起)』 등의 한문 서학서를 통해 천주교 교리를 습득하고 있었다. 이벽은 이러한 선지식을 바탕으로 1777년부터 1779년까지 권철신의 문하생들이 경기도 광주 의 천진암과 여주의 주어사 등지에서 개최하던 강학에 참여하여 이를 천주

교 강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벽이 1779년 천진암 강학에 참여하면서 천주의 존재와 천지만물을 주재하심 등, 천주교와 관련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이 모임이 천주교 강학으로 변화되었다. [이벽이 주도한 가시적 첫 번째 전교·포교 활동]

천진암의 독서처를 비우고 서울에 나가 있던 이벽은 1779년 기해년 겨울에, 저명한 학자 권철신이 서울에서 백여 리나 떨어진 심산궁곡의 한 절간에서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총역 등과 함께 강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이벽은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눈속에 걸어서 권철신이 우거하던 여주지역의 주어사를 먼저 찾아 자정 무렵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① 1779년 겨울 강학은 천진암에서 열리고 있었다.

정약용이 쓴 ‘권철신 묘지명’을 보면, “지난 기해년(1779) 겨울에 강학이 주어사에 딸린 천진암에서 있었는데, 눈 속에 이벽이 [주어사를 거쳐] 밤중에 도착하여 밤새 촛불을 켜놓고 경을 담론하였다. 그 후 7년 만에 비방이 생겨났으므로 이렇듯 성대한 자리는 다시 열리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해년 겨울에 강학이 천진암에서 있었다고 하였는데, 곧 전치사 우(于是 요즈음 @를 의미하는 뜻글자 : 講學于天真菴走魚寺)에 직접 해당되는 강학 장소가 바로 천진암이므로, 주재용 신부도 바로 이 강학 장소를 천진암이라고 기술하였다.

명례방집회
을사주초적발

1785년

천진암이 바로 이 강학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기록은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 있다. 앞의 ‘권철신 묘지명’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비망기에 이벽이 갔던 길을 서술하기를, 처음의 목적지(주어사)로 찾아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ces chemins difficiles et ardu)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목적지를

잘못 알아, 곧 절을 착각하여(trompé de pagode) 주어사로 찾아가는 그 길이 가파르고 극난한 길이었다고 하였다. 결국 이벽은 자정에 어렵게 도착한 주어사에서 허탕을 치자, 스님들을 깨워 대동하고 앵자봉 반대편에 있는 천진암으로 넘어와 강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벽은 한동안 천진암을 독서처로 삼아 공부하였으므로, 만약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천진암으로 바로 갔더라면, 그 길은 지금의 팔당호에서 천진암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평탄한 외길이므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들지 않았을 터였다. 마침내 도착한 천진암에서 ‘위인들의 윤리경전에 관하여 연구와 강학’이 이루어졌고, 유럽 사람이 한문으로 쓴 철학서적과 수학서적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참석자들은 이런 책들을 깊이 연구하는 데에 열성을 다하였다.

② 기해년 천진암 강학으로 한국천주교회는 시작(창립, 創立)되었다.

강학의 내용과 그 결실은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대로, 강학하며 배운 바를 실천하여 아침저녁 기도와 주일과 재계(齋戒, 대소제)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내용을 권철신 묘지명에서, “그 후 7년 만에 비방이 생겨났으므로, 이렇듯 성대한 자리는 다시 열리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집회는 7년 후에 있었던 ‘명례방 집회’와 같은 전례모임이며 기도활동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아직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임, 곧 교회의 가시적 표현인 신앙공동체가 1779년 겨울에 천진암에서 생겨났으므로, 이것이 바로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이 되는 것이다.

③ 참고로, ‘세례 준비자들’을 일컫는 ‘Catechumeni’를 지금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예미신자’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오역이다. 우리의 옛 용어는 ‘신문교우(新間敎友)’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14항에서, ‘Catechumeni, 세례 준비자들’을 이미 자녀가 된 신자들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진암에서 강학하며

화세

단식, 금육

기도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은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주일과 대, 소재를 지키는 신앙인이었으므로, 천진암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된 것이었다.

이승훈의 파견과

선교활동

이벽은 1783년 동지사행에 자신을 대리하여 조선 신도 회 대표로 사돈 이승훈(李承薰, 베드로, 1756~1801)을 북경천주교회로 파견하여 세례를 받고 오게 하였다. 황사영(黃嗣永, 알렉시오, 1775~1801)은 백서(帛書) 43행에서, 이벽의 이승훈 파견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승훈은 이벽 선생이 기특히 여기던 사람이다. 이벽은 성서(聖書, Sacra Scriptura)를 몰래 보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몰랐다. 이벽이 이승훈에게 이르기를,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고, 거기에는 서양 선비들인 전교자들이 있으니, 찾아가서 신경(信經, Credo Symbolum)을 한 부 구하러 왔다고 하고, 영세도 아울러 청하게! 그리고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게!’ 하니, 이승훈이 그의 말대로 하였다.” 이승훈은 1784년 2월에(2월 22일 베드로 사도좌 축일로 추정, 이미 1773년에 해산된 예수회 출신의 그라몽(J. J. de Grammont, 1736~1812?, 梁棟材)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다양한 성물과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성 박록

이벽은 이 서적들을 받아 추가하여 연구한 후, 본격적으로 전교활동과 함께 전례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벽은 최창현, 김범우 등도 대세(代洗)를 받게 하는 등 복음 전파에 주력하였다. 그는 그때까지 수표교에서 해오던 천주교리에 대한 학습과 기도모임을 명례방(현 명동성당 일대) 김범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벽은 이렇게 천진암 강

학(이벽이 주도한 가시적인 첫 번째 전교활동)부터 1785년 명례방 집회(이벽이 주도한 가시적인 마지막 전교활동)까지 7년간 교회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이벽은 1784년 4월 보름, 마재에서 누이 이씨의 기제사에 참석한 후, 한강을 따라 서울로 가는 배에서 사돈 정약전과 정약용에게 설교를 해서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 1784년 9월에는 양근 감호에 거주하는 스승 권철신을 말을 타고 찾아가, 그와 더불어 10일 동안 천주교에 대한 담론을 진행하여 스승을 설복하였다. 이에 권철신은 다소 주저하면서도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동생 권일신은 즉시 이벽을 따라왔다.

이후 1784년 겨울, 이벽은 서울의 수표교 집에 이승훈을 초빙하여 이벽 본인과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등에게, 그라몽 신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세례식(洗禮式 [代洗])을 처음으로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벽의 세례명은 요한 세례자[若翰, 요안], 정약용은 요한 사도[若望, 요왕], 권일신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方濟各 沙勿略, 방지거 사베리오]였다. 이렇게 이벽의 독자적 전교활동으로, 천진암에서 1779년 겨울에 이미 가시화된,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한국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자 집단에 이들 또한 가시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벽, 이승훈, 권일신 이 세 명의 한국천주교회 창립주역은 조선천주교회 창립에 재능과 재산과 목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의방(依倣)

대세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큰 방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교자가 늘어가고, 더욱이 양반 학자들의 입교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자 유럽 선비의 반대와 지성인들의 비난이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저명한 인사들과의 토론이나 논쟁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세

입교자가

드디어 1784년 겨울, 당시 고명한 학자로 평판이 높은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이 먼저 공개 토론을 하려고 이벽의 수포교 집을 찾았다. 사흘 동안 계속된 토론회는 결국 이가환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이가환은 이벽에게 굴복하여 『천학초합(天學初函)』과 함께 『성년광익(聖年廣益)』까지 가져다 거둬 읽고는 이를 믿기로 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권유하여 교리를 가르치며, 아침저녁으로 이벽 등과 비밀리에 왕래하였다. 그런데 이가환은 제자들에게는 천주교를 믿고 세례도 받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훗날로 미루었는데, 이는 장차 때가 오면 자신도 이승훈처럼 북경에 가서 서양 선교사한테 직접 영세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두 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는 문의현령 이기양(李基讓, 1745~1802)과의 공개 토론이었고, 이 역시 이벽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가환이나 이기양과 같은 학자들은 『천주실의』와 『칠극』 등을 읽으면서도 학문으로서는 반겼으나, 이벽과의 토론에서 승복하기까지는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박해와

순교

을사년(1785) 3월, 결국 최초의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벽의 제자였던 젊은 학자들은 김범우의 집에서 매주 정기적인 (명례방)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날 교회 예절 거행을 위해 푸른 두건을 쓴 이벽이 좌정하고, 학자들은 이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책을 들고 엄숙한 자세로 앉아, 강론과 교리해설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1년 전 북경천주교회에 파견되었던 이승훈, 권일신과 아들 권상문, 정약용

과 형 정약종과 정약전, 이 외에도 최창현, 최인길, 김종교, 지황, 김범우, 이충억 등 한국천주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명례동에 사는 김범우에게 와서 배운 이들 중에는 김종연(*족보 이름 김종현) 형제도 있었는데, 이들이 곧 김대건 신부의 큰할아버지 김종현과 할아버지 김택현이었고, 명례방 집회에도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추조금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안을 수색하고 성물과 성서를 몰수해 가는 동시에 집주인 김범우를 체포하였다. 다른 이들은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므로 강제로 귀가조치하여 해산시켰다. 이에 권일신은 5, 6명의 양반 학자와 함께 추조판서 김화진을 찾아가 김범우와 같은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러나 추조판서는 양반 학자들을 달래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김범우는 계속 모진 매질과 고문을 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유배를 보냈다. 김범우는 심한 고문으로 매 맞은 상처가 악화하여 2년 후 유배지에서 순교하였다.

그러나 1785년 3월의 천주교 박해는 집회소 주인인 김범우의 유배조치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양반을 벌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문중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성현 이벽은 그렇게 희생되었다. 물론 이벽 순교의 경우를 문중과 가정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이벽의 죽음은 당시 조선사회 전체가 그의 문중과 가족에게 무서운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였다. 외부 사회의 선비들이 동원되어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윤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가정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에 이벽의 부친 이부만은 대청마루 들보에 밧줄로 목을 매달며 아들 이벽에게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 아내의 만류로 이부만은 자살 미수에 그쳤고, 이벽의 순교 후에도 33년을 더 살았다(91세). 이러한 상황에서 이벽의 순교는 사실상 가정과 문중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당시 조선사회와 조정이 저지른 최초의 천주교 박해라 하겠다.

이같이 이벽은 외교인 가족과 친척의 배교 강요에 맞서다 1785년에 순교 하였다. 그러나 이벽이 마지막 순간을 맞아 어떠한 신앙고백을 하고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로 알려진 것이 없고, 순교 이후 문상까지 차단하기 위해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 정도였다. 이에 다블뤼 주교는 가족이 흘렸을 헛소문만 듣고, 이벽이 페스트 역병에 걸려 앓다가 병오년(1786) 봄에 33세로 죽었다고 기술하였으나, 사실 가족과 친척, 인근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벽만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¹⁾

당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도 아버지 영조 임금이 내린 아사(餓死)벌로 대궐 안마당에서 뒤주에 갇혀 10여 일을 굶다 죽었다. 또 신유박해 때 경기 감사 이익운의 아들 이명호(李明鎬, 요한, ?~1801) 역시 강제로 독약을 먹여 순교하였고, 이번에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 대상에 올랐다(12번 하느님의 종). 이처럼 이벽은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니, 순교한 시기는 1785년 여름이었다.

1789년에 이승훈이 작성하여 윤유일(尹有一, 바오로, 1760~1795)을 통해 북경교회에 전달한 편지에서 이벽의 순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초기교회의 박해 상황도 알 수 있다. 이 편지에서 이승훈은 1784년부터 1789년까지 벌써 10여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천주를 흠송하는 이들이 사방 천 리에서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해가 4, 5곳에서 일어나 많은 교우가 잡혀 투옥되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감언이설로 유혹을 받는 등, 한 마디로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대세

1) 이벽의 실제 사인은 1979년 발굴 당시 신체의 변색으로 보아 독살되어 순교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톨릭 의대 권흥식 박사의 현장 증언이 이를 증명한다. 또 그의 제자로서 1979년 발굴 현장에 참석한 한승호 교수는 2005년 5월 23일에 이를 문서로 재확인하였다.(참조 : 수원교구 50년사 I . 교구사, p.37)

백절불굴의 용기를 보인 사람의 수가 아주 많았는데, 10여 명은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인용한 중국 선교사들의 편지도 다수 전하고 있다.

이벽이 순교하자 그의 사돈이며 지우인 정약용은 장례식을 맞아 만사(輓詞, 죽은 이를 애도하여 지은 글)를 지었고, 이벽과 교류한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 (朴齊家, 1750~1805)도 별도의 추도시를 지어 남겼다. 이벽의 순교 후 시신은 선산이 있는 포천군 화현리에 묻혔는데, 변기영 문시놀이 기적적으로 찾아내 1979년 6월 21일에 수원교구 이장위원회에 의해 발굴되어,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한 이장미사(1979. 6. 24. 주일 11시) 후 천진암성지 내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 묘역으로 이장하였다.

관련 자료

- 다블뤼 주교, 『조선 순교사 비망기』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 최양업 신부, 「1851년 10월 15일자 서한(8번)」
- 황사영, 「백서」
- 「이승훈 베드로가 1789년 말 북경의 북당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
- 정약용, 『여유당전서』 중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와 여러 묘지명 및 시문(詩文)
- 안정복, 『순암집』
- 이기경, 『벽위편』
- 『추안급국안』, 『사학징의』, 『승정원일기』, 『일성록』, 『추국일기』, 『경주이씨계유보』, 『남보』, 『백가보』
- 주재용, 『한국 가톨릭사의 응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70.
- 『한국 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1』,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1.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42 ~ 1791)

비망기에 전하는권일신 가문

다블뤼 주교는 비망기에, “이벽은 복음을 빨리 전파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놓기 위해, 학식과 평판으로 존경을 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인물을 몇 명 끌어들이 그 지주로 삼을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전에도 좋은 심정을 보인 일이 있는 양근의 권씨 가문으로 눈을 돌렸다. 권씨 5형제가 다 지식과 덕망으로 유명하였지만, 그 중 셋째가 특출하였으니, 그는 호를 직암이라고 하는 권일신이었다. 이 권씨 5형제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벽은 이 학자들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합류시켜 복음 전파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 권일신은 1784년 9월에 감호로 찾아온 큰형 권철신의 제자 이벽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는 즉시 열심히 따랐다. 그리고 자기가 신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 전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친구와 친지들에게 신앙을 전해 크게 성공하였다.

이후 인천에 사는 동생 권익신의 집에서 맏형 권철신에게 편지를 보내, 함부로 천주교를 비판하지 말고 천주교 서적을 자세히 볼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권철신은 본격적으로 동생 권일신이 학습한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나서 암브로시오란 이름으로 **대세(代洗)**를 받게 되었다. 권일신은 장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에게도 전교하였는데, “천주교는 참으로 진실한 학문이고 천하의 큰 근본과 통달한 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천주교를 거듭 권면하였다.

하느님의 종 권일신(權日身, 1742~1791)의 자는 성오(省吾), 호는 직암(稷菴)이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 권근(權近)의 후손으로, 증조부 권흠(權欽)은 함경도 관찰사까지 지냈으나, 조부 권돈(權敦, 1680~1720)은 한성에 살며 진사에 머물렀고, 부친 권암(權巖, 1716~1780) 때에 **감호(鑑湖)**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권일신의 어머니는 남양홍씨 홍상빈(洪尙賓, 1672~1740) 진사의 딸(1714~1799)이며, 포천의 홍교만(洪敎萬)은 외사촌 형이다. 권일신은 당대의 실학자이며 척사론자가 된 안정복의 사위다.

세례와

전교활동

권일신은 1784년 겨울에 이벽, 정약전, 정약용 등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승훈에게 **대세(代洗)**를 받았다. 그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 동양 전교의 개척자인 성인을 본받아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권일신은 초기에 서울과 광주, 양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세를 더 넓게 확장하였다. 형 권철신의 제자로, 덕산의 이충역을 따라 문하생으로 들어온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곤자가 / * 루수, 1759~1801)**을 가르쳐 **내포의 사도가** 되게 하였고, **전주의 유항검(柳恒儉, 아우**

구스티노, 1756~1801도 1784년에 권철신을 찾아왔다가 권일신의 가르침을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권일신은 이렇게 제자를 양성하여 파견함으로써 교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권일신은 권철신의 제자로 들어온 윤유일에게 복음을 전하여 북경에 밀사로 파견하였다. 윤유일은 조선천주교회 최초의 밀사로 북경에 두 차례 다녀왔다. 또한 권일신은 그의 외사촌 형인 포천의 홍교만에게도 전교하여, 포천지역 신앙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조카 권상익과 충주의 이기연, 이재섭(또는 이용섭, 권철신의 둘째 사위)과 남필용 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들은 충주에 신앙공동체를 세웠다.

한편 전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전주와 진산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는 모두 권일신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진산의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은 정약용의 외사촌 형인데, 그도 권철신의 제자인 정약전의 영향으로 1784년에 입교하여 정약전을 대부로 1787년에 대세(代洗)를 받았다. 이에 윤지충의 영향으로 무안, 무장, 고산 지역의 신앙공동체도 생겨났다. 그리하여 1795년에는 정조가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는 데 실패하자, 이가환과 정약용, 이승훈을 충주, 금정, 예산 등 호서지방의 천주교인이 많은 곳으로 보내 천주교를 탄압하고자 할 정도였다.

박해와 순교

권일신은 1785년 3월 명례방 집회에서 체포되어 억류된 김범우 토마스를 구하기 위해 5, 6명의 양반 학자들과 함께 추조판서 김화진을 찾아가, 김범우와 같은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고, 아울러 성물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으로 가문박해를 당한 이벽이 집에서 독살당해 순교하자, 부친이 이미 사망하여(1780)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권일신은 이때 이웃 마을의 조동섭(趙東暹, 유스티노, 1738~1830)과 함께 용문산에 들어가 8일간 피정을 하였다.

이후 권일신은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홍낙민, 이존창, 유향검, 최창현, 최야고보 등과 함께 신생교회를 이끌어갈 **의방(依倂)성직제도**를 조직하여, 열명의 신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평신도에 의한 여러 가지 성사 집행이 교회법에 어긋난 독성죄임을 알게 된 그는 1789년 윤유일을 북경교회에 파견하여, 무지로 인한 독성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동시에 조선교회를 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1790년 4월에 북경에서 돌아온 윤유일은 선교사 파견을 청하는 편지를 들고 그해 8월에 다시 북경교회에 도착하였다.

이때 윤유일을 통해 북경 주교의 **제사금지령**이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으로 전달되어 양반 신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아담 샬(Adam Schall, 1592~1666, 湯若望) 신부가 지은 『주교연기』를 읽었던 양반 신자들은 보유론 신자로 남은 채 교회활동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권일신은 위기에 처해서도 활동을 계속하여, 1791년 신해박해로 순교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런데 조선교회가 제사금지령을 접한 후인 1791년 5월, 윤지충 바오로가 모친상을 당하였다. 그는 전염병을 핑계 삼아 문상을 피하며 초장(草葬, 시신을 짚에 싸서 임시로 묻음)을 지내고 나서, 8월 그믐날에야 기한을 넘겨 천주교식 장례를 지냈다. 이에 대해 대사간 신기를 시작으로 상소가 잇따르자, 윤지충은 10월 26일에 관아에 자수하여 문초를 받았고 11월 13일(양력 12월 8일)에 참형으로 순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일신은 이존창, 최필공(崔必恭, 토마스, 1745~1801)과 함께 사학괴수(교주)로 지목되었는데, 이때 권일신은 스스로 형조(刑曹)에 자원하여 나아가, 모두 7차에 이르는 심문을 받았다.**

권일신은 특히 천주교회의 우두머리로 낙인이 찍혀서 정조의 특별한 관심 속에 심문을 당하면서 배교를 강요받았다. 권일신은 문초를 받으며 무수한 매질과 고문을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耶穌)가 참하느님이라는 신앙고백을 계속하였다. 다블뤼 비망기 43쪽에서 권일신은 말하기를, “저는 하늘과 땅과 모든 천사와 인간의 창조주이신 위대한 천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저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으며, 그분에 대한 의무를 꺾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791년 11월 8일의 일곱 번째 문초에서는, “유독 예수에 대해서는 끝내 그가 사특하고 망령되다고 배척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정약용은 권철신 묘지명에서, “권일신은 애초 죽음을 무릅쓰고 굴하지 않아서, 제주도로 유배지가 결정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권일신도 고문에 못 이겨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는 「회오문(悔悟文)」을 남기게 되었다. 소위 「회오문」이라는 이 글은 사실상 불러주는 대로 쓴 듯한 내용이며, 아주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이었다. 결국 이는 정조의 특별 지시로서, 양반의 두목으로는 권일신을, 중인의 두목으로는 최필공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한다는 교시에 따른 왜곡된 글이었다. 「회오문」에는 측근에 의한 문서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다블뤼 주교는 권일신이 회오문을 적었기 때문에 배교자로 죽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블뤼 주교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① 권일신은 체포되기 전에, 1791년 11월 3일 이전에 자원하여 미리 형조에 출두함으로써 순교를 지향하는 양심선언을 한 셈이었다. 권일신의 이 같은 순교에 대한 열망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 지금의 내 말만 믿으라.”라고 한 의미와 같았다.

② 과도한 고문과 형장(刑杖)을 받은 후에 작성된 「회오문」은 그 자체로 무효다. 왜냐하면 나약한 인간의 한계성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자 신태보의 경우도 심한 매질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야소(예수)도 나는 모른다.”라고 고갯짓으로 대답하고 나서, 감방에 돌아와 정신이 들면서부터 예수를 배반한 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그 사례다. 이 같은 허언(虛言)을 방지하기 위해, 권일신도 성이나시오처럼 양심고백의 의미로 미리 형조에 나가 자수한 것이었다.

③ 신해년(1791) 11월 16일자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보면, 「회오문」이 조작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권일신이 이미 진술하였다는, “예수(耶穌)의 학문은 요사하고 부정하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이 문서가 권일신이 직접 쓴 것을 옮겨 적은 것이라면, 주문모 신부가 직접 써서 건네준 경우처럼 ‘耶穌’라고 썼어야 한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쓴 한역 서학서에는 모두 예수의 이름을 ‘耶穌’[穌=魚(물고기, IXΘΥΣ)+禾(밀알, 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회 신부들의 저서를 읽고 공부한 권일신이 예수라는 한문 표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회오문」에는 모두 ‘耶穌’로 적혀 있다. 이는 권일신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권일신의 「회오문」을 근거로 그가 배교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권일신은 1791년 12월 22일에 순교하였다. 권일신에 대한 문초기록은 1791년 11월 16일(양력 12월 11일)로 끝난다. 그러나 비망기를 보면, “권일신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며 감옥에서 나와, 며칠(10일) 동안 이윤하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배교’라는 말없이 어떤 ‘굴복’의 표시(「회오문」)로 유배지가 예산읍으로 감형되었는데, 그는 길을 떠나자마자 상처가 심해져 어느 주막에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권일신은 12월 11일

에 출옥하여, 10일간 이윤하의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발하였고, 하룻길을 가서 순교하였으므로 그의 순교일은 12월 22일이 된다.

이에 관해 권일신의 가문에서는 그가 유배형을 받고 하룻길을 가서 용인에 도착하였을 때, 용인 객사(용인 관아가 있던 현재의 용인시 구성)에서 뒤따라온 자객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순교하였다(以邪學杖斃)고 한다. 권일신의 시신은 가족에 의해 선산이 있는 양근 효자봉 기슭에 묻혔다가, 1981년 11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 만형 권철신의 유해와 함께 천진암성지 내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하느님의 종 권일신의 후손은 그의 모범을 따라 대를 이어 순교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를 입었다. 권일신의 셋째 아들인 복자 권상문과 딸 복녀 권천례 데레사, 손자 권항(권검), 증손자 권복과 권석 필립보, 고손자 권기용(權起容) 요한 등 5대가 1791년에서 1868년 사이에 순교하였다. 두 쌍의 동정부부 순교자, 곧 복자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 동정부부, 복자 권천례(權千禮, 데레사, 1783~1819)와 조숙(趙塾, 베드로, 1786~1819) 동정부부가 탄생한 것도, 그의 모범과 전교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순이의 모친(한림동 이연기 군수댁)은 권일신의 막내 누이동생이고, 권천례 데레사는 그의 딸이다. 권일신의 맏아들 권상학은 1801년 신유박해로 신안 임자도에 유배되었다.

관련 자료

- 다블뤼 주교, 『조선 순교사 비망기』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 이기경, 『벽위편』
- 『추안급국안』, 『사학징의』, 『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2』,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1.

十

창립선조

권철신 암브로시오

(1736 ~ 1801)

비망기와

권철신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는, “정약용은 천주교가 조선에 알려진 것이 이벽의 저 강학이 있기 200여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홍유한이 예산에서 살다가 순흥 지방 소백산으로 터전을 옮겨 13년을 살다 예산에 와서 죽었다.”라고 전한다. 실제로 홍유한은 칠극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1775년에 남쪽 순흥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주는 혼자가 아니라 권철신과 권제신, 이기양 등 뜻이 맞는 후배들과 함께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776년 초에 홍유한의 아내가 갑자기 죽자, 권철신 일행은 남행 계획을 포기하고 감호에 그대로 남아 후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이들의 『칠극』 실천 생활은 천주교 신앙의 실천이라기보다 유학에 따른 수행의 일환이었다. 그렇기에 1784년 겨울, 이벽의 천주교 신앙생활 실천에 반대하는 이가환과의 토론에 이어 문의현령 이기양과의 공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1784년 12월에 안정복이 권철신과 이기양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가환과 이기양이 토론에서 이벽에게 승복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느님의 종 권철신을 설득하려고, 이벽은 1784년 9월에 말을 타고 양근 고을의 감산(감호)을 찾았다. 이벽은 책을 가지고 와 열흘 간 머물면서 천주교 교리와 실천에 관한 담론을 벌여 권철신 집안을 설복시켰다. 이때 동생 권일신은 곧바로 천주교를 수용한 반면 권철신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후의 비망기를 보면, 이벽이 방문하고 얼마 후에 권철신은 ‘암브로시오’라는 이름으로 대세(代洗)를 받았다.

그것은 동생 권일신이 인천에서 보내온 편지에, 천주교를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찬찬히 살펴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동생이 읽어 보라고 권한 서적 가운데는, 천주 흠숭주재지설(欽崇主宰之說) 및 인간은 영혼을 지닌 고매한 존재로서 동물과 식물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삼혼설(三魂說), 세상은 동양의 오행설(五行說) 대신에 물, 불, 공기, 흙 등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는 사행설(四行說) 등이 기술된 아담 샬 신부 저술의 『주교연기』란 책이 있었다.

권철신의 가족관계

권철신은 남인 대가의 후손으로 이름난 유학자였는데, 권암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은 권제신, 권일신, 권득신, 권익신이다. 어머니는 남양홍씨 홍상빈의 딸로, 포천의 홍교만은 권철신의 외사촌이다. 권철신은 의령남씨 남돈(南墩)의 딸과 결혼하여 딸 둘을 낳았는데, 맏딸은 이충억에게, 둘째 딸은 이용섭(李用燮 또는 이재섭 *남보 498 : 이재섭의 매부는 병인박해 순교자 남상교 아우구스티노)에게 시집을 보냈다. 부친 사망 후(1780), 권일신의 셋째 아들 권상문을 계자로 입양하고, 후에 오석충(吳

錫忠)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 권상문은 생부와 양부를 따라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로 활동하였는데, 1795년에는 여러 지방을 방문하던 주문모 신부를 양근 감호의 자기 집(즉 권철신의 집)에 3일간 모시기도 하였다.

권일신이 천주교 전파에 적극적이어서 제자를 양성하고 각종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데 앞장선 것과는 달리, 권철신은 가장으로서 조용히 가족과 지인 등에게 교리를 전하였다. 결국 집안 형제와 조카들이 모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권철신은 그의 학문과 도덕적 명망만으로도 천주교를 알리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보유론적 신앙과

전교활동

1791년에 진산사건이 발생하자, 권철신은 “집안에 보관된 50권의 천주교 서적을 불태우거나 관아에 바치고 천주교를 배척하여 멀리하였으며, 그 자신 제사도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추국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진산에서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훼손한 행위를 두고, 천주교의 어느 서적에도 나오지 않은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그 자신만은 이전처럼 사판(祠版, 신주)을 보관하고 유교식 제사를 계속 봉행하였다고 한다. 권철신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글인 아담 샬의 『주교연기』에서 서술한 대로, 천주교가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불교를 배척(補儒闢佛 : *『주교연기』 3권 24b)하는 신앙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권철신은 1801년 2월 11일자 문초에서 자신이 천주 신앙을 받아들인 동기를 밝혔다. 곧, 그는 『주교연기』에 나오는 흠송주재지설, 삼훈설, 사행설을

언급하면서, “저의 집안은 제사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권철신은 보유론적 입장, 곧 아담 샬의 ‘제사는 폐지할 수 없다(不可廢祭: *『주교연구』 3권 13a)’는 제사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철신은 1784년에 『주교연구』를 읽은 뒤에 비로소 **대세(代洗)**를 받았고, 자연스레 ‘천주교가 유교를 보완한다는 생각과 우량한 습속의 제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윤유일이 북경에서 받아들인 제사금령의 문제는 교의(Dogma)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규정(Disciplina)의 문제로 여겼다. 따라서 문초 때에도 법리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제사관을 피력하여, “나는 제사도 폐지하지 않았다.”라며 양심에 따른 소신을 밝히고 있다.

또한 권철신은 1791년 권일신의 순교 이후 두문불출하면서도, 평소 교류가 있는 친척이나 신자들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권철신이 두문불출한 것은 배교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회활동을 위한 은거로 볼 수 있다. 박해자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밖으로는 드러나게 활동하지 못하였으나, 양근 감호에 머물면서 조용히 신앙생활과 전교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황사영의 추국 진술에 의하면, 신앙에 충실한 양반으로 황사영 자신과 권철신 그리고 정약종을 꼽고 있다.

여사울의 이존창은 원래 덕산의 이기양 밑에서 공부하였는데, 이후 이충억을 따라 권철신의 문하로 옮겨 학문을 닦고 있었다. 그러다가 1784년 겨울 무렵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워 **대세(代洗)**를 받았다. 이존창의 발길은 당진과 보령의 염전 지역에서 삼교천 인근의 덕산, 그리고 공주와 청양으로 이어졌다. 김대건 신부의 집안과 최양업 신부의 집안도 이존창의 가르침으로 신자가 되었다. 후에 서울로 이주하여 지도층이 된 홍필주와 황심 역시 이존창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한편 권철신의 여종 구애는 아현에 있는 황사영의 집과 안국동에 있는 강완숙(姜完淑, 골룸바, 1761~1801)의 집으로 권철신의 아내와 함께 왕래하며 사서를 강습하였고, 1801년 정월에는 황사영이 권철신의 집에 와서 그의 아내를 만나 강론하며 이틀 간 머물렀다. 그리고 황사영은 구애를 시켜 홍필주의 모친 강완숙(즉 주문모 신부)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여 강완숙은 황사영의 집에 (주문모 신부의) 답장을 보냈다. 강완숙의 문초 기록에는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주고받은 장소로 권철신의 집도 언급되어 있다.

여주의 이증배도 권철신의 집을 드나들었다. 또 남필용은 권철신의 처남으로, 1791년 무렵 자형인 권철신의 집에서 천주교 서적을 보고 천주교를 봉행하였다. 그는 1801년에 강진 유배형을 받았으나 형조에서 고문 끝에 죽었다. 남필용의 아들 남제는 천주교 관련 혐의로 무장으로 유배되었다.

그 외에도 “권철신이란 이름의 권위로 많은 외교인이 복음으로 이끌려왔다.” 여주의 노론 대가인 김건순(金健淳, 요사팓, 1776~1801)이 18세 되어 양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1793), 권철신에게 문의하여 송나라 때의 의식으로 장례를 치르며 긴 변호문을 썼는데, 이가환도 이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김건순은 밤에 권철신을 찾아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후 1797년 8월에 정광수가 전달한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받고 상경하여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갔다. 김건순은 여주의 이증배, 원경도, 이희영(李喜英, 루카, 1756~1801. *이가환과 쌍겹 매부지간인 정철조의 제자 화가) 등을 개종시켰고, 1801년에 국청의 정법죄인으로 처형되었다. 이처럼 여주지역의 신앙은 권철신에게서 신앙을 알게 된 김건순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권철신의 외사촌 홍교만은 그의 사촌 서제(庶弟) 홍익만(洪翊萬, 안토니오, ?~1802)과 아들 홍인(洪鎭, 레오, 1758~1802) 등과 함께 권철신의 영향으로 입교

하여 1801년 박해 때 모두 순교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철신에게 천주교를 학습한 여종 구애는 강원도 간성으로, 여종 순덕은 경남 함안의 칠원으로 각각 유배되었다. 또 권철신에게서 천주교를 배운 조용대는 전남 강진으로, 윤지겸은 경남 진해로, 윤학겸은 경남 사천으로 각각 유배되었다. 이처럼 권철신에게서 천주교를 배운 그의 집안사람이나 제자 가운데 다수가 1801년 박해로 유배형을 당하였다.

신앙고백과

순교

권철신의 집안은 향리에 널리 알려진 명망 높은 안동 권씨였기에, 1791년 진산사건과 이로 인한 권일신의 순교 이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경신년(1800) 4월에 여러 교우들이 명도회에 가입한 후로 신공을 부지런히 하여 감화자들이 붙어났다. 경신년 11월에 정조 임금의 장례가 끝나자 12월 17일에는 최필공이 잡혔고, 12월 19일 성헌당첨례일(백서 22행 *지금의 주님봉헌축일)에 오(吳玄達, *사학정의 193) 스테파노도 잡혔다. 그러함에도 1801년 정월 초에 황사영이 감호로 권철신을 방문하여 2일간 머물다 가기도 하였다. 권철신은 1801년 박해로 체포되어 관가에서 심문받던 중 사람에게는 신령한 영혼이 있음과 ‘사행설’ 및 “주재자 천주를 흠송한다.”라는 등의 천주교 교리를 긍정하고, 이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여 천주교 신앙을 증거하였다.

권철신은 심문 과정에서 제사 문제로 법리적인 논쟁을 벌인 내용과 함께, 제사 윤�유일이 북경에 갔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순순히 인정하여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 곧, 권철신은 윤�유일을 제자로 받아들여 학문과 신앙을 전

하고 그의 북경 파견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은자 50냥을 제공한 이가환과 함께, 지난 1795년에 윤유일이 처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유년 2월 19일에 30대의 매를 맞았고, 3일 후인 2월 22일(양력 4월 4일)에 장폐(杖斃)로 순교하였다. 권철신의 시신은 순교 3일 후인 2월 25일에 기시(棄市, 시신을 거리에 버려두는 형벌)되었다. 이후 수습되어 양근 효자봉에 묻혔다가 180년이 지난 신유년(1981) 11월 21일~23일에 동생 권일신의 유해와 함께 천진암성지로 이장되었다.

황사영은 정약종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보필하면서, 구베아(Gouvea, 1751~1808, 湯士選) 주교의 제사금령을 교회의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적응주의를 대변하는 『주교연기』를 읽어 볼 수 없었으나, 예수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한 안센주의적 책자 『성교절요(聖敎切要)』는 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주의에 입각한 보유훈과 ‘불가폐제’의 제사관을 지닌 권철신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권철신의 순교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순교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집안 족보에는 권일신과 마찬가지로 권철신도 “천주교 때문에 몽둥이를 맞아 죽었다.(以邪學杖斃)”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문중 족보에서 권철신과 권일신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그 이름에 네모표시를 둘러놓았다.

후손들의

활동과 수난

권철신의 집안은 그의 감화로 온 집안 식구가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게 되었다. 큰딸은 이기양의 맏아들 이충억(李寵億, 1764~1822)과 결혼하여 딸만 낳았기 때문에 동생 이방억(李龐億, 1776~1837)의 아들 이

의경(李宜敬, 1801~1891)을 후계자로 입양하였다. 이의경의 동생 이의창(李宜敞, 레오, 1813~1879)은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 다블뤼 주교와 드게트(Deguette, 1848~1889, 崔東鎭) 최 신부의 복사로 활동하다 순교하였다.

그리고 권철신의 둘째 딸은 연안이씨 이세환(李世煥)의 아들 이용섭(李用燮 또는 이재섭)과 결혼하였는데, 이용섭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서적을 익힌 죄로 정읍으로 유배되었다. 이용섭의 생부는 윤유일과 같이 사서를 읽혀 김해로 유배간 이세관이다. 권철신의 외증손이며 이용섭의 손자인 이문우(李文祐, 요한, 1809~1840)는 모방(Maubant, 1803~1839, 羅伯多祿) 신부의 복사로도 활동하였는데, 그는 황성에서 살다가 기해박해 때 잡혀 옥중서간을 남기고 참수로 순교하였으며 1984년에 시성되었다.

권철신의 양자인 복자 권상문은 권일신의 삼남으로 감호에서 출생하였고, 조부 권암이 1780년에 사망한 뒤 권철신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권상문은 생부 권일신과 양부 권철신을 따라 천주 교리를 학습하였는데, 1791년 생부 권일신의 순교 이후에는 서울 남대문 안으로 이사해 황사영과 교유하였다. 1795년 봄에는 주문모 신부를 수행하여 양근 집에 3일간 모셨고, 이어서 전주로 내려가 주문모 신부에게 교리를 배웠다. 1800년 6월 양근에서 체포되었는데, 1801년 2월 경기감영으로 이송되어 10개월간 투옥되었다. 그는 신유년 12월 27일(양력 1802년 1월 30일)에 해읍정법(該邑正法, 중죄인을 고향에서 처벌하여 본보기로 삼는 법)에 따라 양근으로 끌려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권상문은 해주오씨 오석충의 딸 오숙혜와 결혼하여 권검(權儉 또는 권황)과 권탁(權倬)을 낳았다. 오숙혜는 시아버지 권철신에게서 교리를 배운 죄로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어린 권검과 권탁은 신유박해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1839년 기해박해 때 양근 관아에 체포되었으나 배교하고 풀려났다. 권검은 권복(權復 또는 권복초) 프란치스코와 권석(權禘 또는 권첨) 필립보 등 2남 1녀를 두었다.

권철신의 증손자 권복과 권석은 남종삼(南鍾三, 요한, 1817~1866)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권복(權複, 프란치스코, 1813~1868)은 1868년 4월에 체포되어 윤4월 7일에 서문 밖 네거리에서 이신규 마티아와 함께 56세의 나이로 참수 치명하였다. 권복의 아들 권기용(權起容 또는 권승렬, 1844~1868) 요한은 장동 태생으로 10세에 마르타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고, 16세에 베르노(Berneux, 1814~1866, 張敬一) 주교에게 고해성사를 본 바도 있다. 1868년에 25세로 죽임을 당해(물고) 순교하였다. 권석 또한 함경도에서 포도청으로 잡혀와 같은 시기에 순교하였다.

권철신의 처남 남필용(南必容)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가기로 결정되었으나, 심문 과정에서 맞은 때로 옥중에서 순교하였다(물고). 남필용의 아들 남제(南悌)는 황사영에게 교리를 배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장으로 유배되었다. 남필용의 막내아들 남이관(南履灌, 세바스티아노, 1780~1839)은 신유박해 때 경상도 단성으로 유배갔다가 1832년 해배되었다. 이후 남이관은 아내 조증이(趙曾伊, 바르바라, 1782~1839)와 이천에서 살다가 상경하여 정하상(丁夏祥, 바오로, 1795~1839)의 일을 도왔다. 이들은 1839년 9월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여, 부부가 함께 103위 한국 순교성인에 올랐다.

권철신의 아우로 권암의 차남인 권제신은 권상술(權相述, 老彭, 1760~1809)과 권상립(權相立, 己人, 요한, 1768~1813)을 낳았다. 권상술은 1801년 황사영 백서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었다가 1803년 아내 이조이의 격쟁(擊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거동길에 팽과리를 쳐서 하소연하는 행위)으로 옥에서 풀려났다. 이후 그는 교회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권상립, 이여진, 조동섬, 홍우송 등과 함께 성직자 영입운동을 추진하였다. 권상립은 직접 북경에 가지는 않고 이여진 요한을 보냈지만, 조선 신도들의 대표로서 1811년(신미년)에 서한을 교황과(1811년 10월 24일자) 북경 주교에게(1811년 11월 3일자) 올렸다.

그리고 권철신 형제 가운데 넷째인 권득신의 아들 권상익(權相益)은 충주의 사도 이기연(李箕延, 1739~1801)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 결과 충주에도 신앙이 전파되었다. 이기연은 63세 때 제사를 지내지 않은 죄목으로 충주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끝으로, 권철신의 막냇누이 권씨(1754~1835)는 이윤하(李潤夏, 마태오, 1757~1793)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낳았다. 그 중 장녀는 흥낙민의 조카 흥갑영에게 시집을 갔고, 그 아래로 장남 이경도(李景陶, 가물로, 1780~1801), 차녀 이순이 루갈다, 차남 이경중(李景重), 삼남 이경언(李景彦, 바오로, 1792~1827)을 두었는데, 이들 중 세 명이 순교자다. 한편 신유박해 후 파양된 이윤하의 본가에서도 순교자가 나왔으니, 병인치명사적 18권 35쪽의 이용우(李容瑀)는 이경도의 당질인데 1866년에 순교하였다. 즉 이용우는 이윤하의 형 이인하(李寅夏)의 손자다.

이 밖에도 권철신의 집안은 이벽의 형 이격과도 조용히 교류하면서 신자들을 도왔는데, 이격은 권씨 가문과 교류한 죄로 벼슬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추방되었다. 이벽의 동생 이석도 흥양현으로 유배되었는데, 『남보』를 보면 이석의 손녀가 되는 이현기의 딸도 이윤하의 일족인 이용규(李容圭)와 혼인관계로 맺어졌다.

관련 자료

- 황사영, 『백서』
- 정약용, 『여유당전서』 중 「녹암권철신묘지명」과 「선중씨묘지명」
- 이기경, 『벽위편』
- 다블뤼 주교,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조선 순교사 비망기』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 『추안급국안』, 『순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포도청등록』, 『사학징의』, 『남보』
- 『한국 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2』,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1.

十

창립선조

이승훈 베드로

(1756 ~ 1801)

이승훈의

강학 참여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는 외삼촌 이가환과 성호 이익의 영향을 받으며, 이익의 제자 권철신의 문하에서 이벽, 정약용, 정약전, 홍낙민, 이윤하 등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이기경과도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승훈도 천진암 강학에 참여하였다. 정약전 묘지명에, “정약전이 이윤하, 이승훈, 김원성 등과 돌같이 굳은 친분을 맺었고, 권철신의 문하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 강학회자는 김원성, 권상학, 이충억 등 몇몇 사람이었다. 이때 이승훈도 자신을 가다듬고 노력하였으므로 함께 서교로 나아가 향사례를 행하니, 모인 사람이 백여 명이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 또한 많았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강학 전후의 문장에 연결되어 이승훈의 이름과 그 활동이 나오므로, 이승훈도 강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승훈 역시 천진암 강학에 참여하여 마침내 주일과 재계를 지키는 기도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천주교회 창립에 이바지하였다.

이승훈은 한국천주교회 창립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 교회창립 이전부터 한문 서학서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익혀온 대도사(大道師, Maître) 이벽의 파견으로, 북경에 가서 기도서를 비롯한 다수의 천주교 서적을 가져왔다. 이로써 이벽의 독자적 전교활동에 의하여 이미 가시화된,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한국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자 집단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때문에 이벽이 순교한 1785년 여름 이후의 시기부터, 박해자들은 이승훈이 야말로 조선에 천주교를 널리 전파한 원흉이라고 지목하여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훈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과 평가에 대해 부인한 적이 없었다. 이승훈은 1784년 겨울, 수포교에 있는 이벽의 집에서, 이벽의 요청에 따라 북경에서 전 예수회 출신의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洗禮, solemn baptism)를 받은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벽 본인과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등에게 대세(代洗, private baptism)를 베풀었다.

이승훈의 가문

이승훈의 집안은 5대조 이창환과 4대조 이경(李炯)과 그의 형 이담(李壇)이 생원이 될 때까지는 한성에 살았으나, 동생 이배(李培)가 진사시에 합격할 때는 인천에 살았다(1662). 그러므로 이 집안은 1660년 경부터 1717년경까지, 즉 고조부 이경과 증조부 이태석(李泰錫) 대에만 잠시 인천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할아버지 이광식이 문과에 합격할 때는 이미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 이광직(李光澤, 1692~1769)도 문과에 합격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서울로 이주하였다. 부친 이동욱(李東郁, 1738~1794)은 문과에 급제하여 영월 도호부사, 사간원 사간 등을 거쳐 의주 부윤에 이르렀다. 이동욱은 1778년에 처음으로 동지사

서장관으로 발탁되었으나 사정이 생겨 정우순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다 5년 후인 1783년에 다시 동지사 서장관에 임명되자, 아들 이승훈이 자제군관(子弟軍官)의 명목으로 북경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승훈의 가족을 보면, 이동욱의 장남인 그에게는 남동생 이치훈(李致薰)과 여동생들이 있었다. 여동생들은 각기 심동량(沈東亮)과 정학연(丁學淵, *정약용의 장남)에게 출가하였다. 이승훈의 어머니는 성호 이익의 조카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딸 여흥이씨로, 그는 채제공 이후에 남인의 대를 이을 인물로 지목되던 이가환의 손위 누이다. 이승훈은 정약용의 누이, 곧 정재원의 딸(1755?~1806)과 결혼함으로써 정약현,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등과 처남 매부 사이가 되었다.

이승훈 자신은 정재원의 딸 정씨와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 이택규(李宅逵, 1780~1851)는 흥낙교(*흥낙민 순교자의 형)의 딸과 결혼하여 이재중(李在琮), 재의(在誼), 재관(在瑄)을 낳았다. 차남 이국규(李國逵, 1785~1852)는 이석하(李錫夏)의 딸과 결혼하여 이재만(李在晩)을 낳았다. 삼남 이신규(李身逵, 1793~1868) 마티아는 밀양박씨와 사별 후 무송윤씨와 결혼해 이재겸(李在謙, 1829~1871, 운산 순교)을 낳았다.

이승훈의 거주지와 관직

이승훈의 집은 서울 남대문 밖 염초천 다리에 있었고, 지금의 죽림동(약현) 지역 반석방에서 태어나 만초천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를 만천(蔓川) 혹은 만계(蔓溪)라 하였고, 자는 자술(子述)이라 하였다. 그의 세례명 베드로는 북경 북당에 머물던 그라몽 신부가 이승훈에게 세

례를 주면서, 초기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장차 조선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희망하면서 지어준 것이다.

이승훈은 25세 때인 1780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학(西學)에 관심을 가졌을 뿐 관직에는 별다른 욕망이 없었는데, 1785년 을사박해 이후 부친 이동욱의 강요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그는 1790년 9월 20일에 목릉참봉이 되었고, 10월 2일에는 의금부 도사가 되었다. 1791년 2월 13일에는 서부도사가 되었고,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791년 6월 24일에 평택현감이 되었으나 11월에 잡혀 왔다. 이후 1793년 12월 27일에는 다시 양구현감이 되었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 ‘실포사건(失捕事件)’으로 1795년 7월 26일 예산으로 유배되었다가 1796년 3월 21일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승훈의

북경 세례와 귀국 활동

하느님의 섭리는 이승훈의 북경행을 두 배의 확률로 높여 아버지를 동행하도록 안배하였다. 『일성록』에 의하면, 1783년 10월 15일에 사은사 홍낙성, 윤사국, 이노춘이 먼저 하직 인사를 하였고, 1783년 10월 24일(양력 11월 18일)에는 동지사 황인점, 유의양, 이동욱이 하직 인사를 하고 북경으로 떠났다. 이후 사은사는 12월 13일에 북경에 이르렀고, 동지사는 12월 21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귀국은 1784년 3월 4일에 사은사 홍낙성과 이노춘이 입시하여 입국 보고를 하였고, 1784년 3월 24일에는 황인점과 유의양이 입시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승훈은 아버지를 따라 1783년 10월 24일에 출발하여 1784년 3월 24일에 귀국할 때까지 만 5개월 동안 연행(燕行)을 하였다.

이승훈이 북경에 머물면서 북당에서 단기간의 교리학습을 받았고, 전 예수회 출신 선교사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시기는 양력 1784년 2월이다. 이승훈은 양력 1784년 1월 13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종종 미사에 참여하면서 2월 22일(일요일)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영세하였을 것이다. 특히 그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1784년 2월 25일 / 음력 2월 5일)’에 재를 엮는 예식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1785년 ‘을사추조적발 사건’ 때, 이벽이 주도하였던 명례방 집회를 보면, 재의 수요일 예식을 모방한 듯이 얼굴에 분을 바르고 청색 망건을 쓴 ‘분면청건(粉面靑巾)’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사순절과 대림절에 신부들이 청색 제의와 네모난 두건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승훈은 미리 준비되어 북경에 파견되었고, 결국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주변 신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여 일 만에 오로지 필담(筆談)만으로 교리를 배워 영세하였다는 것은, 이벽이 이승훈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지(裝送) 않았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승훈은 1783년 연행에 나서기 전에 이벽으로부터 북경 천주당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신경(信經) 등 천주교의 여러 기도서를 구입하고 세례까지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승훈은 개인적으로 서양 수학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수학자인 그라몽 신부를 찾아갔다. 그라몽 신부는 이승훈에게 수학은 물론이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 필담으로만 주고받은 교리학습이었고, 그 기간마저 1개월 정도로 극히 짧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라몽 신부만은 조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승훈에게 세례 주기를 힘써 주장하여 마침내 관철시켰다. 이승훈은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북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만약 조선의 임금에 천

주교를 박해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또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고 첩을 두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며, 동시에 해마다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도 하였다. 한편 교리학습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승훈이 비록 세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교회의 전반적인 전례나 성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1785년에 이벽이 순교한 후, 이승훈은 평신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미사성제를 비롯하여 각종 성사를 함부로 거행하는 독성죄(*妄行聖事: 황사영 백서 48행)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1784년 봄(양력 4월 13일)에 귀국한 이승훈은 사돈 이벽과 함께, 북경에서 가져온 다양한 교회 서적을 열람하고, 이를 통해서 부족한 교리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 힘썼다. 서적 가운데에는 기존의 『천학초함(天學初函)』에 포함된 『천주실의』와 『칠극』 외에도,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매일의 기도서와 성인들의 전기인 『성년광익』, 피정 묵상서 『성경광익』, 그리고 칠성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있었다. 천주교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서인 『진도자증(眞道自證)』과 이단과 다양한 종류의 미신 행위를 배척하는 호교론서 및 교리서인 『성세추요(盛世芻蕘)』 등도 있었다. 이승훈은 이벽과 정약용, 권일신 등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선교활동과 더불어 전례모임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승훈과 그의 동료들이 다양한 천주교회 서적을 통해 교리를 익히는 것을 염려한 안정복이 권철신에게 편지를 썼는데, “요즘 들으니, 정조(이가환), 천전(정약전), 자술(이승훈), 덕조(이벽) 등이 서로 긴밀히 언약하고 신학(新學, 천주학)의 학설을 익힌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라고 하였다. 안정복은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문의현령이던 이기양의 두 아들, 이충억과 이방억도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벽은 이승훈이 가져온 교회 서적을 통해서 교리 지식을 넓히고 심화한 다음 전교활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1784년 여름부터 정약전과 정약용, 권철신과 권일신, 이가환과 이기양 등에게 차례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에 1784년 겨울에 이승훈은 이벽의 수포교 집에 초빙을 받아, 이벽의 주도하에 이벽 본인과 권일신, 정약전과 정약용 등에게 대세(代洗)를 줌으로써 이벽의 독자적 전교활동에 의해 천진암에서 1779년 겨울에 이미 가시화된,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한국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자 집단에 이들 또한 가시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박해와 순교

1785년 3월에 형조 금리들이 명례방 집회를 적발하자, 유림의 천주교 반대 상소가 빗발쳤고, 이에 이벽은 가문박해로 순교하였다. 이승훈과 정약용도 집안 친척의 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이승훈은 비록 「벽이시」와 「벽이문」을 짓지 않을 수 없었으나, 끝까지 참고 성교를 봉행하였다.(백서 45행) 그리고 교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교를 강화하기 위한 의방(依倂)성직제도를 만들어서 열 명의 신부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세례성사는 물론이고 각종 성사와 미사를 주관하면서 활발하게 전교하였다. 1787년에는 성균관 옆 반촌(津村)의 김석태 집에서 정약용, 강이원 등과 교리서를 열독하며 조직을 다졌다. 그러나 이기경 진사의 고발로 다시 유림의 통문이 나돌았고, 또한 동료 신부의 지적으로 사제직에 대한 의문이 일게 되었다. 이에 이승훈 등은 1789년과 1790년에 연이어 윤유일을 북경 천주당에 파견하여, 함부로 성사를 행한 것에 대한 독성죄를 고백하고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그러면서 이승훈은 집안이 아직도 박해의

손아귀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니, 조선천주교회의 지도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선에 신부 파견을 청하는 성직자 영입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훈은 1791년 신해박해의 여파로 평택현감에서 파직되었고, 교회활동의 전면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성직자 영입운동에 관여하는 등 여전히 교우들과 교류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 주문모 신부가 1795년에 조선에 들어오자 회개하려고 준비하던 중 주문모 신부의 '실포사건'을 계기로 다시 박해가 일어났고, 정약용, 이가환과 함께 천주교회의 괴수로 지목되자 다시 움츠렸다. 이승훈은 결국 1795년 7월 26일에 예산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정약용도 금정 찰방으로 좌천되면서 동료 신부였던 이존창도 구금되었다. 이승훈은 이때도 외형상 배교의 표시로 「유혹문」을 지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앞선 1785년에 썼던 글의 반복일 뿐이었다.

이승훈은 신유박해로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에 서소문 밖에서 정약종, 최창현, 홍교만, 홍낙민, 최필공과 함께 여섯 명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순교 직후 이승훈의 시신은 여종 이갑례에 의해 선산이 있는 인천 남동(현 장수동 반주골)에 묻혔다. 그 후 180년이 지난 신유년(1981) 11월 28일, 인천에 있던 그의 무덤을 발굴하자, '성균진사 이공승훈묘(成均進士李公承薰墓)'란 글자가 쓰인 사발이 나왔다. 그의 유해는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교구 이장위원회에 의해 1981년 11월 29일에 천진암성지로 이장되었다.

이승훈의 신앙고백

황사영은 이승훈이 겉으로는 세속을 따랐으나 늘 다시 떨치고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 이승훈이 겉으로는 성교를 해쳤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사신(死信)이 남아 있었다고도 하였다. 그러기에 황사영은 “이승훈이 아무리 배교한다 해도 사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그가 순교[善死]하였는지 여부는 더 조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황사영이 다음에 제시하는 결안과 유시와 유언 등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다.

우선 조선시대의 처형 절차를 보면, 사형을 받기에 앞서 먼저 죄인이 본인의 결안(結案, 사형을 결정한 최종 판결문)에 서명하고, 본인이 이를 읽은 뒤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저는(矣身)’으로 시작되는 이승훈의 결안은 그 순교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신앙고백이다. 사형을 당하는 이유를 밝히는 자백이요, 이 고백 때문에 처형되어 순교하였기 때문이다.

① 이승훈의 결안을 보면, “저는 (북경에서 선교사에게) 직접 영세하였고, 만리 밖에서 책을 구입해 들여와 모든 인척과 친구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서울과 시골,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미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서양 사람과 왕래하고, 다른 무리들을 엮어 뭉쳤고, 흥악하고 비밀한 계책은 윤유일과 같이 하였고, 음험하게 속이는 자취는 정약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금령이 반포되고, 사악한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드러난 뒤에도, 겉으로는 가족만 드러냈고 (유교로 회개하는 척하였으나) 그 속마음은 실로 별레 같은 마음(천주교)을 품었으므로, 요망하고 추한 무리가 저를 보고 교주라 하고 대부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다고 저는 자백합니다.” 하였



다. 여기서 “이 사실이 맞다고 저는 자백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만(遲晩)’이다. 다블뤼 주교는 이 지만을 ‘저는 이를 인정합니다.(Je le reconnais)’로 번역하였다.

② 둘째, 이승훈의 [유시(遺詩)]를 주목할 수 있다. 죽음에 임한 이승훈은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달(머리)은 비록 지더라도 하늘에 그저 있고, 물(피)은 비록 치솟아도 그 못 속에 온전하다.(月落在天 水上池盡)” 이 유시는 후손에게 구전되어 오다가, 주재용 신부가 1965년 11월 4일에 이승훈의 묘소를 방문하였을 때 채록하여 알려졌다.

③ 그리고 이승훈은 이러한 [유언(遺言)]을 남겼다. “수확의 때가 왔다. 잘 깨어 있어야 할 때다(Voici l'heure arrivée de la moisson, c'est le moment de se tenir bien éveillé).” 이 유언은 1930년에 피송(Pichon, 1893~1945, 宋世興) 신부에 의해서 채록된 것으로, 이 또한 이승훈의 신앙고백이다.

④ 또 교황청의 동인도 주변국들-중국제국-북경에 대한 발췌문의 주석(SOCP70) 문헌 269면 각주에는, “신앙 때문에 죽은 조선인 신자들 가운데, 조선 임금이 중국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거명한 사람으로 이 베드로 즉 이승훈이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⑤ 마지막으로 1845년 3월, 김대건 부제가 순교자 보고서를 쓸 때도 이승훈이 순교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김대건은 “이승훈, 권일신, 이존창 즉 이단원, 최창현, 유향검 등이 주교와 사제를 선출하고, 온갖 성사를 집전하며 미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모두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라고 기술하였다.

이승훈의

보유론

박해자들은 이승훈의 「유혹문」이나 「벽이시」 등을 배교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의 지도자(교주)와 그들의 거처(와굴)를 고발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협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은 이에 대해서 조금도 발설하지 않고 침묵 또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였다. 이는 물론 교회를 보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무언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요한 15,13 참조)

이승훈은 을사박해(1785)가 일어나자 아버지 이동욱의 강요로 「벽이시」와 「벽이문」을 지었으나, 반대파 인물인 이기경은 1791년 그의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천주교가) 불교와 같다는 것을 배척하였을 뿐, 오히려 천주교의 깃발을 드는 것은 보이나 배척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기경은 “이승훈이 주야로 송경하고, 더욱이 수십 권 책자를 비단보에 싸서 궤에 넣어두고, 주야로 조만과경을 외운다.”라고 적었다.

이렇게 이승훈은 을사박해 이후에도 의방(依倂)성직제도를 시행하며 전교하였고, 1787년 정미반회사건 이후 제사에 관한 시험문제를 받았을 때는 문제 풀이를 거부하고 백지를 내며 시험장을 나왔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승훈은 자신의 양심상 결코 배교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승훈은 1789년과 1790년에 북경으로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의 배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의방성직제의 죄만 독성죄로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1791년 신해박해 때 이승훈의 활동에 대해 언급한 충청광영계록 1845년 7월 20일자 기사에는, “이승훈이 관직(평택현감)에 부임한 지 여러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성묘에 배알하지 않고, 공적인 일로 성묘에 들어가서도 병을 핑계 대고 절하지 않았습시다. 매일 밤 고깔을 머리에 쓰

고 두 손바닥을 합치고 주문을 외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하늘에 빌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승훈은 1795년에 예산에 유배되었을 때도 「유혹문」을 지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85년에 작성된 「벽이문」의 반복일 뿐이다. 서쪽에서 온 학문(西來之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교를 지칭하고 있고, 교우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천주강생(天主降生)’을 쓰지 않고 ‘하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온다는 말(天爲人以降之語)’ 등으로 예둘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승훈이 진정으로 배교하여 동료 신자를 회유하고자 이 글을 썼다면,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가령 서학(西學)과 천주(天主), 야소(耶穌)와 강생(降生)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천주강생설을 비판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승훈이 작성한 「유혹문」은 1785년에 아버지의 강압으로 마지못해 작성된 「벽이문」의 반복일 뿐이며, 당면한 궁지를 슬기롭게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그 속뜻을 간파한 이기경과 같은 반대자와 박해자들은 「벽이문」이나 「유혹문」을 두고 이승훈이 배교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해자들의 주장대로 이승훈은 교묘히 숨겼을 뿐 「유혹문」 발표 이후에도 신앙을 간직하였다.

정약용이 그러하였듯이 이승훈도 공술에서, “처음에는 제사를 폐하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승훈은 권철신 등과 함께 아담 샬의 『주교연기』를 읽었고, 조상제사를 좋은 풍속으로 보고 계속 보존해야 할 습속으로 인식하는 ‘보유론’을 간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1787년 ‘정미 반회사건’에서 등장하는바 제사를 금지하는 안세니즘적인 『성교절요』란 책이 등장하고, 이와 더불어 구베아 주교의 제사금령이 나오자, 이승훈도 권철신이나 정약용처럼 제사금령을 불변의 교의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규정으로 받아들였다.

후손들의 순교

이승훈은 그 자신과 그의 후손까지 모두 4대에 걸쳐서 여덟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의 신앙 선조가 되었다. 이승훈의 아들 중에서는 삼남 이신규 마티아(1793~1868. 5. 28. 순교)가, 손자 중에서는 이재의(李在誼, 1808~1868) 토마스과 이재겸이 순교하였다(1871. 운산 옥사). 이승훈의 손자며느리인 이재겸의 아내 정씨는 그의 아들 이명현(李明玄 또는 이명호, 1871. 순교)과 함께 제물포에서 순교하였다.

앵베르(Imbert, 1796~1839, 范世亨) 주교와 페레올(Ferreol, 1808~1853, 高) 주교의 복사였던 이재의는 이방역의 딸(1807~1834)에 이어 이승규의 딸과 결혼하여 이학호(李鶴浩, *뫼텔 주교일기에 의사) 토마스과 이연구(李蓮龜), 이균구(李筠龜) 등을 낳았다. 그러나 차남 이연구와 삼남 이균구가 1871년 5월 14일에 순교하자, 이규호(李奎浩)를 입양하였다.

관련 자료

- 황사영, 『백서』
- 정약용, 「녹암권철신묘지명」, 「선종씨묘지명」
- 이기경, 『벽위편』
- 이재기, 『놀암기략』
- 다블뤼 주교,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조선 순교사 비망기』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 『추안급국안』, 『순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추국일기』, 『사학징의』
- 주재용, 『한국 가톨릭사의 응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70.
- 『한국 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3』,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3.